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의 경우 기능보유자(인간문화재) 선정과 종목의 세분화, 정부차원의 지원 등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영산재는 지난 5월 일용 스님이 임직함에 따라, 영산재 1세대라 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의 맥이 끊긴 상황에서 2세대 기능보유자 선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기능보유자의 선정은 후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전승교육을 위해 가능한 지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유자 선정이 미뤄져 70~80년대의 이수자와 전수자가 지금도 이수자와 전수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영산재보존회(회장 인공)는 송암 스님, 일용 스님 등 보유자가 열반할 때마다 문화재청에 보유자 선정을 요구해 왔으나, 문화재청에서는 영산재 전승교육조교와 이수자에 대한 자료 조사 등 선행 조사를 이유로 보유자 선정을 미뤄오고 있다.



◇지난 6월 봉천사에서 영산재 보존회가 영산재를 시현하는 모습. 영산재의 보존·전승을 위해서는 기능보유자 선정이 시급하다.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시급

또 영산재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지적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선정종목의 세분화다. 실제로 판소리 경우에는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등에 기능보유자가 따로 지정돼 있다. 영산재는 작법만 해도 나비춤, 바라춤, 법고춤 나뉘고, 발우공양에 준비되는 반찬 등 사찰음식도 무형문화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영산재 이수자인 법련스님(영산재보존회 연수 부원장)은 "현재 법패, 장입, 작법으로 나뉘어 있는 영산재는 법패만도 짓소리·흠소리·인채춤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며 "영산재를 세분화해 기능보유자를 선정하면, 보다 원형에 가까운 영산재 보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정부차원의 불교무형문화에 대한 지원과 전문가 육성이 요구된다. 무형문화재의 종목을 세분화할 경우 이를 평가할 전문위원회와 문화재청이 활용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분과내의 위원·전문위원들 가운데 불교의식 전문가는 박범훈(중앙대, 불교음악작곡가) 교수 한 명뿐이다. 재청(청장 노태섭)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무형문화재 제도와 운영·관리를 합리적이고 개방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이는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 회의에

영산재 종목 세분화... 2세대 기능 보유자 선정 전승 위해 후계자 조속 지정·정부 지원 필요 문화재청 소위구성, 보존·전승 활성화 과제 검토

이외에도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보유자 수에 선정되는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점, 보수보유자 선정으로 인한 계승세대 차이와 유파(流派)형성 문제, 전승 취향 종목의 발생 등이 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

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꾸려진 소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분과내의 예능, 공예, 민속 관련 문화재위원과 외부 전문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은 10월 3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1년간 발전적인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소위원회에서 제시되는 방안에는 대대적인 법령·제도의 개정·보완이 필요한 장기적 개선과제와 운영방법의 변화를 통해 개선 가능한 사항 등 장·단기 과제로 분류해 전승자와 관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이를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의 분류체계 합리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보유단체 지정·인정제의 효율적 운영 △복수보유자 인정에 따른 전승문제의 개선 △전승 취향 종목 등 종목 간 전승의 불균형 해소 △전승자의 전승활동에 대한 평가 및 사후 관리 등 무형문화재 제도가 갖고 있는 주요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조사를 펼쳐겠다고 밝혔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한국 전통 무형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줄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1년간의 소위원회 논의를 거친 2005년 이후, 어떤 무형문화재 제도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불상(13)

중대경소(重大輕小)

경주남산을 답사한다면, 삼릉계곡(냉골)의 코스도 핵심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불상을 보고 경주남산의 묘미를 맛보기에는 이 계곡이 그만이다. 이 곳에서는 바위만 보아도 부처님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곳곳의 바위에 불상이 새겨져 있다.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는 아담한 크기의 마애관음보살상을 시작으로, 남산을 찾은 이들에게 경건함을 일깨워주는 묵묵한 석불좌상, 경주에서는 가장 영험하다는 선각 육존불, 평평한 긴장감의 관음

을 품은 아미타부처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불상은 원만한 얼굴에 시원한 눈매를 갖고 있고 지그시 다문 입술에 여유로운 미소까지 머금고 있어 한층 위엄이 넘친다. 그런데 그 표현기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얼굴은 돌을 새김으로 입체감이 충만한데, 몸과 광배는 음각 선으로 새겨 평면으로 처리하였다. 그렇다고 선각으로 표현된 평면적인 몸체가 결코 약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냉골마애불좌상 경주남산을 대표하는 마애불로, 평면적인 몸체에 입체적인 얼굴이 강조되어 있다.

다. 조각과 회화의 만남이다. 조각적인 얼굴과 회화적인 몸, 서로 이질적인 조형 요소가 부딪침으로써 오히려 불상이 더욱 강하게 부각되고 전체적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거대한 마애불에서 몸체를 약화시키고 불상이 집약된 얼굴만을 강조하는 기법은 대중들을 교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원만한 모습·눈매 시원한 냉골 마애불상 얼굴은 양각·몸체는 음각... 불성 더 강렬

미를 보여주는 코가 깨진 석불좌상, 그리고 옆집 아저씨와 같은 선각여래좌상으로 이어지다가 웅혼한 기상의 냉골마애불상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고 상선암에서 막을 내린다. 삼릉계곡의 불적은 다채로움과 박진감으로 가득한 '불상의 교향곡'이다. 그리고 중대경소의 크기 인식이 불륨으로 환원하면, 바로 중요한 것은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된다. 통일신라 말 마애불상은 그 위용이 장관이다. 높고 탁 트인 터에서 멀리 시선을 두고 있는 부처님의 자태를 보면, 경주의 시민만이 아니라 극락에서 온 세상을 제도하려는 큰 뜻

다. 고구려 삼존불상을 보면 불상은 크게, 보살상을 작게 나타내고,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 중요한 것은 크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작게 그렸다. 이러한 특징은 고대의 미술이나 종교미술에 나타난 중대경소(重大輕小)의 스케일 개념이다. 그리고 중대경소의 크기 인식이 불륨으로 환원하면, 바로 중요한 것은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된다. 통일신라 말 마애불상은 그 위용이 장관이다. 높고 탁 트인 터에서 멀리 시선을 두고 있는 부처님의 자태를 보면, 경주의 시민만이 아니라 극락에서 온 세상을 제도하려는 큰 뜻

알코올 중독과 같이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정신질환 치료에 선(禪)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지난 11월 1일 한국선문화학회 제2회 월례발표회에서 김준홍(대구정신병원 진료과장) 박사는 '알코올 중독치료와 선(禪)'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에 있어서 선의 의미와 활용을 AA12단계와 비교한 임상적용 결과를 발표했다.

김 박사는 "알코올 중독 치료에서 집중력 배양, 충동·분노 조절, 인내력 배양, 불안감 감소, 자존심 증가 등을 목적으로 선을 시행하고 있다"며 "하루 20분씩 아침마다 선을 실천한 환자들의 대부분이 '편안한 느낌을 받는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

한다. 김 박사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 치료 가운데 자기반성, 성격적 결함의 인식, 타인에게 끼친 해를 보상,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등 네가지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AA12단계는 불교의 팔정도와 비교된다. 김 박사는 "AA12단계가 팔정도와 참선, 대승사상

이 포함돼 불교의 수도과정과 매우 유사하다"며 "예를 들어 AA12단계 가운데 1단계는 팔정도의 정경(正見)에 해당돼, 자신이 알코올에 무력하며 생활치리능력이 없음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강원대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는 "팔정도는 수행 단계가 아닌 수행 원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AA12단계의 각 단계에 팔정도를 대입하기 보다 팔정도를 기준으로 AA12단계를 비교·검토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며 "이 연구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실험연구 설계를 통한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禪으로 알콜중독 치료한다 분노 불안 조절·인내력도 향상

한국선문화학회 월례회... 김준홍 박사, 임상결과 발표

한편, 김 박사는 "알코올 중독 치료에서 집중력 배양, 충동·분노 조절, 인내력 배양, 불안감 감소, 자존심 증가 등을 목적으로 선을 시행하고 있다"며 "하루 20분씩 아침마다 선을 실천한 환자들의 대부분이 '편안한 느낌을 받는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

한다. 김 박사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 치료 가운데 자기반성, 성격적 결함의 인식, 타인에게 끼친 해를 보상,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등 네가지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AA12단계는 불교의 팔정도와 비교된다. 김 박사는 "AA12단계가 팔정도와 참선, 대승사상

성불화 룬비니 신발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

스님! 승복 색상과 같이 신발도 품위있게 제작

과학적인 개발기간 2년

세상에서 이렇게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 있을까? 성불화 룬비니를 신는 순간 누구나 이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세계적인 전문성 신발메이커인 (주)룬비니 신발공학센터에서 2년의 연구기간과 수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만든 성불화 룬비니가 출시 1년만에 국내시장을 석권하며 젊은층은 물론 공복들까지도 감탄과 찬사를 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공복은 K씨는 광고를 믿지도 않지만 어머니가 10여년 전 접연으로 통증을 못하고 고생하는것이 안타까워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라도 사드려라고 하면 중 성불화 룬비니 신발을 산 순간 기쁨을 잊을 수 없으며 활동도 함다고 한다. 또한 서울 서초구에 사는 70세 사는 신발이 너무 가볍고 편해 1족을 구입했으나 혹시 생산이 중단되면 어떻게 할까해서 서생 신스라고 3족을 더 구입했다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백사슴

천연방수가죽 뉴백은 천연가죽중 최고급가죽으로 대단히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나 미국, 일본, 유럽에서 최고급신발에만 사용되는 가죽으로 상투에서 최고급신발도 통한다. 는 비닐때에 미끄럼방지용 위해 밑창을 조절된 싼프그립을 개발하여 완벽한 미끄럼방지 기능과 접지력과 충격력을 감쇄했으며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하체의 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발에서 강력한 흡이온과 원주외선을 방사하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성불화 룬비니는 남녀공용으로 225mm-285mm까지 사이즈별로 제조했으며 전화로 사이즈와 주소를 알려주면 전국 어디나 우체국택배로 정성껏 보내고 있다. 가격88,000원

문의전화 : (02)722-2890
 홈페이지 : 360-12-046446 최승우

스타필드 국내 첫 시판

살이 빠져요

한국특허 제 0239854호
 미국특허 제 5974699호
 일본특허 제 3027143호

1시간 걸거나 뛰어도 3시간 운동효과 월2kg 감량 OK!

balance your body

▲착지시 충격이 5% 감소에 미치는 과학적인 신발

평지걸어도 통산하는 효과

지금까지 독일, 미국, 일본에만 수출하던 신발과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스타필드 운동화 국내시판에 들어가 시판 3개월도 안과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비만의요신발로 우리들 27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미국은 다이어트 조깅화, 일본에서는 다이어트신발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신발이다. 한국체육대학교 '유용만' 교수는 스타필드 신발은 뒤축이 15° 굴중에 떠있는 상태이므로 평지를 걸어도 산에 등산하는 것과 같이 운동량이 배가 효과가 있으며 짧은 착용기간에도 운동 지루함, 트러닝과 근력트레이닝의 탁월한 운동효과를 나타내 운동할 시간이 없는분은 물론 일반인도 운동신수준에게도 필요한 제품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스트레칭 효과 개선이 실려

스타필드는 다이어트 보행자제로 알려진 발중심-발앞굽 보행이 가능하도록 뒤축을 15° 정도 높게 설계해 몸의 관절과 허리를 부드럽하게 주는 효과가 있으며 신는 순간부터 운동효과를 배가시켜 다이어트는 물론, 온전미를 살리는데 효과가 있다. 또 발을 찢지 때문에 발바닥의 울퉁을 지압해 장시간 보행에도 피곤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과 뒤축에 실려

는 재증을 분산시켜 뇌까지 전달되는 충격을 일관화해 처음 했을때 보다 35%까지 감소시켜 준다.

운동역학적 설계로 세계시장 석권

스타필드를 신어본 이들은 한결같이 스타필드의 운동효과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스타필드는 운동부족과 영양과잉 섭취 등으로 비만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최소실용 수 밖에 없다.

뒤축15° 없어 3cm 커보여

또한 뒤축이 3cm가 떠있어 키가 작아 고민하는 사람에게 3cm 키가 커보여 키가 작아 고민도 해소된다. 세계적인 전문성 신발제조회사인 삼막봉상(주)에서 제작된 스타필드는 국내판매는 (주)룰비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225mm-300mm까지 제작되어 전화로 사이즈와 주소를 알려주면 전국어디나 우체국택배로 보내고 있다. 가격135,000원

문의전화 : (02)2271-1441
 홈페이지 : 360-12-046446 최승우